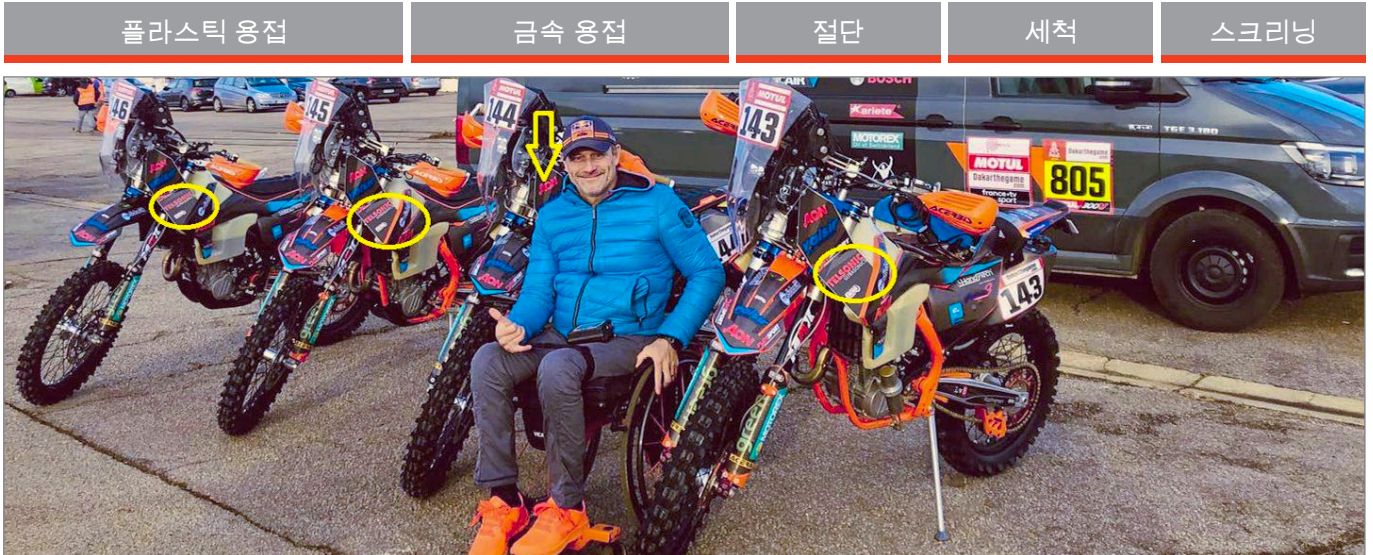


하반신 마비를 이겨낸 니콜라 두토가 다카르에서 재기하다

성공을 향한 팀워크, 동기 부여 그리고 열정



2019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다카르 랠리가 남미에서 개최됩니다. 41회 다카르 랠리는 10개 구간이 여러 나라를 통과하지 않고 페루에서 단독적으로 진행됩니다. 랠리 역사상 최초로 코스의 약 70%가 사막과 모래 언덕을 지나갑니다.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 위치한 출발선에는 이탈리아 출신 레이서 니콜라 두토(Nicola Dutto)가 있습니다. 그는 모터사이클 최초로 하반신이 마비된 레이서로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모터레이싱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니콜라 두토와 그의 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총 5,000km에 달하는 험난한 코스는 3,000km의 특수 테스트 코스와 2,000km의 콤비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선수는 모터사이클 최초의 하반신 마비 레이서로 위험 천만한 사막 레이싱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니콜라는 레이싱 유경험자이며 장애를 극복하고 본인에게 최적화된 장치를 사용하여 까다로운 모터사이클 레이싱 다수에서 선두의 자리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는 탁월한 훈련 방법과 컨디션 그리고 트레이닝 팀과 스폰서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음파 전문 기업 Telsonic도 스폰서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 로(Rho)에 위치한 자회사 Telsonic Italia S.R.L.의 고객을 통해 이 훌륭한 선수를 후원하게 되었고, 2010년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의 열정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팀워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그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당사의 기업 철학에 부합합니다. Telsonic 직원 일동은 2019 다카르 랠리에서 니콜라 두토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